

글로벌 경제 전망 및 변수와 해외건설 관련 시사점

(‘21.11.16,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목 차 ~

I.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II. 세계 경제 주요 변수

1. 중국 전력난 사태
2.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물류 대란)
3. 석탄 · 천연가스 ·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4. 테이퍼링 · 금리인상

III. 시사점

※부록: 중동 지역 주요 국가별 건설 금융 Issue Focus

I.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 2021년 세계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백신 보급률, 공급망 대란의 영향을 주요하게 받고 있으며, 2022년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과 경제 정책의 효과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IMF

가. 2021년

- IMF는 10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9%로 전망
 - * 지난 7월에 제시한 6.0%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
- 선진국의 성장률은 5.2%, 미국은 6%, 중국은 8%로 낮아졌으며, 우리나라는 7월 전망치인 4.3%를 그대로 유지함
 - * 선진국은 0.4%포인트, 미국은 1.0%포인트, 중국은 0.1%포인트 하향 조정
- 선진국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 등이 전망치 하향 조정에 반영되었으며, 중동과 신흥국·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조건과 수출 무역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 IMF는 전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백신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며,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국가는 긴축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함

나. 2022년

- IMF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 우리나라는 3.3%로 전망
- IMF에 따르면 2022년에 물가 상승 압력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양상과 공급망 병목 현상의 지속 기간에

따라 전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큼

-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지역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10월 기준(%) (7월 대비 변화, %p)	7월 기준 (%)	10월 기준(%) (7월 대비 변화, %p)	7월 기준 (%)
세계	5.9 (-0.1)	6.0	4.9 (0)	4.9
선진국	5.2 (-0.4)	5.6	4.5 (+0.1)	4.4
우리나라	4.3 (0)	4.3	3.3 (-0.1)	3.4
미국	6.0 (-1.0)	7.0	5.2 (+0.3)	4.9
영국	6.8 (-0.2)	7.0	5.0 (+0.2)	4.8
아시아 신흥국&개발도상국	7.2 (-0.3)	7.5	6.3 (-0.1)	6.4
중국	8.0 (-0.1)	8.1	5.6 (-0.1)	5.7
중동&북아프리카(MENA)	4.1 (0)	4.1	4.1 (+0.4)	3.7
중남미	6.3 (+0.5)	5.8	3.0 (-0.2)	3.2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2. OECD

가. 2021년

- OECD는 9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7%로 전망
 - * 지난 5월 제시한 5.8%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
- G20은 6.1%, 미국은 6.0%로 낮아졌고, 중국은 8.5%로 지난 5월 대비 변동 없으며, 우리나라는 5월 전망치인 3.8%보다 0.2%포인트 상향된 4.0%로 전망
 - * G20은 0.2%포인트, 미국은 0.9%포인트 하향 조정
-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과 백신 보급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으나, 델타변이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여러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

- OECD도 IMF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함

-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지역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9월 기준(%) (5월 대비 변화, %p)	5월 기준 (%)	9월 기준(%) (5월 대비 변화, %p)	5월 기준 (%)
세계	5.7 (-0.1)	5.8	4.5 (+0.1)	4.4
G20	6.1 (-0.2)	6.3	4.8 (+0.1)	4.7
우리나라	4.0 (+0.2)	3.8	2.9 (+0.1)	2.8
미국	6.0 (-0.9)	6.9	3.9 (+0.3)	3.6
영국	6.7 (-0.5)	7.2	5.2 (-0.3)	5.5
중국	8.5 (0)	8.5	5.8 (0)	5.8

* 출처: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1.09)

나. 2022년

- OECD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5%, 우리나라는 2.9%로 전망
- OECD는 현 시점의 둔화된 성장 모멘텀은 2022년 빠른 경기 회복을 통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가계 저축의 소비 전환으로 내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며, 아태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

II.

세계 경제 주요 변수

- ◆ 대대적인 중국의 전력난 사태로 비롯된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 현황까지 해외 건설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변수들의 흐름을 분석

1. 중국 전력난 사태

- 현황
 - 중국 저장·광둥·장쑤성 등 산업기지 밀집 지역이 전력 부족을 겪으며 철강, 화학공업, 시멘트 등 여러 업종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함
- 원인
 - 글로벌 친환경 정책 흐름에 동참 및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환경 정화를 목표로 중국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의 공급을 제한 중
 - 호주가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을 지지함과 동시에 지난해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2020년 말부터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 수입 석탄의 절반을 호주에 의존하던 중국은 수입량 급감에 따라 석탄 가격이 폭등하여 전력 회사들이 생산을 멈춤
- 영향
 - 섬유부터 반도체 부품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의 생산에 차질 발생,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2.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물류 대란)

◦ 원인

-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동남아시아 공장 셧다운, 전력난으로 인한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등의 문제로 **아시아권에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미국·유럽** 등의 지역에서 공급 차질 발생 중
- 전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할 선박이 부족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본국으로 돌아갔던 항만 종사자, 트럭 운전자 등이 본업으로 복귀하지 않아 인력난 발생

◦ 영향

- 운송 수단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물류비가 오르고 장비·자재 공급이 지체되면서 단가가 상승함
- 납품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자재를 선주문하는 업체들로 인해 **자재 단가 추가 상승 및 추가 공급 지연** 발생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기존 해외 위탁 생산에서 **국내 생산 기지 건립**에 나서고 있는 추세
- 각국별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중

3. 석탄·천연가스·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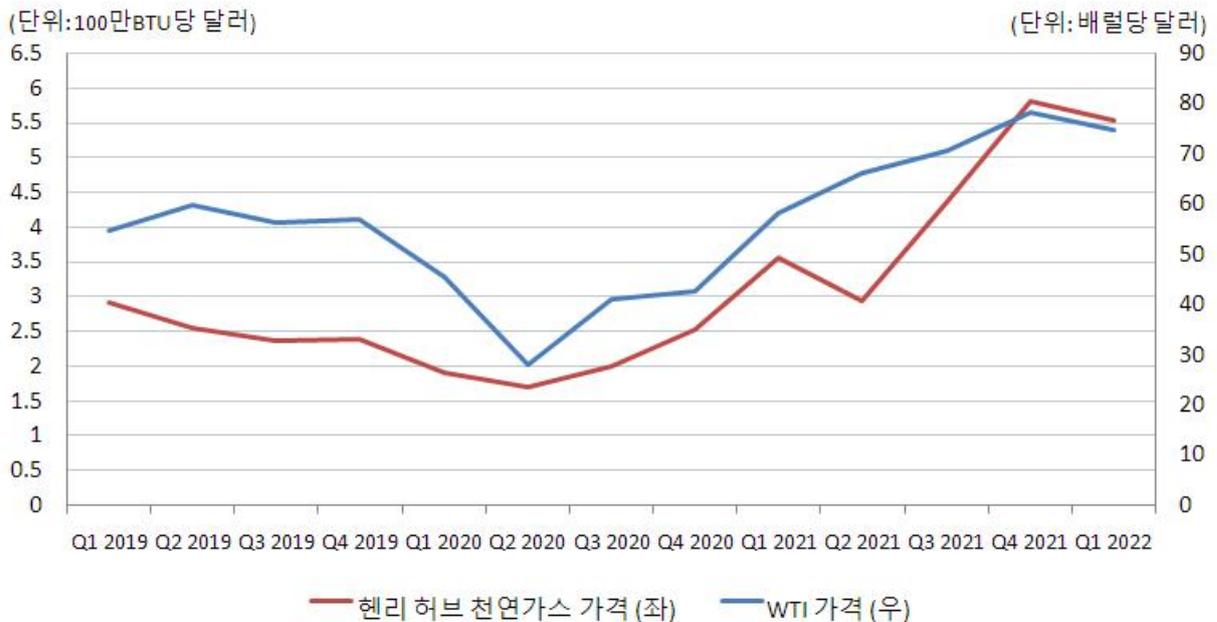
-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올해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겨울과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발전연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발전이 올해 기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함
- 전세계 공급망 차질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

- (유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함, OPEC+는 공급 과잉 우려로 추가 증산 없이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11월 회의에서 합의

◦ 주요국 현황

- 중국은 현재 호주 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는 있으나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
- 유럽은 연초대비 천연가스 가격이 4배 가까이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사용을 임시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석탄 역시 각국에서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중
-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6개월 만에 2배 올랐고, 올해 석탄 소비량이 작년 대비 23%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음
- 중동지역은 석탄·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석유 대체수요로 강세를 보이는 유가의 추세를 지켜보는 상황

- 미국 천연가스, 원유 가격 추이 -



* 출처: EIA - Short-Term Energy Outlook (2021.10.13)

- 전망
 - 최소 내년 초까지 겨울철 전력·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유가 상승세에 특히 더 낙관론을 견지한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6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국가 간 여행 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4. 테이퍼링¹⁾·금리인상

- 배경
 -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시중에 통화를 푸는 정책을 펼쳤고, 근래 전세계 에너지(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망 마비 현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
- 미국
 -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약 1년 반 동안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왔음
 - 11월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테이퍼링의 시작을 알렸으며, 11월과 12월 매입 규모를 각각 150억 달러씩 줄이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
 - 연준은 경제 전망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본격적 통화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의 근시일내 시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음
 - 현 자산 매입 축소 속도가 유지될 시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 말, 일부는 테이퍼링 종료 직후 시점으로 예상되는 7월 금리 인상을 전망

1) 자산매입축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자산(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에 풀었던 통화(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 유럽

- 유럽중앙은행은 9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6개월 만에 낮춘 뒤 같은 속도를 유지 중이며, 매입 규모는 최소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로 유지하기로 함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2%에서 유지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준 금리는 현행 0%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 미국 연준, ECB 기준금리 추이 -



*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 Economic Research Resources

III.

시사점

- 미국의 테이퍼링이 예견되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실제 테이퍼링이 개시되고 금리 인상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임**
- 단, 미국이 **2022년 금리인상을 시행할 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환차손익 등 수익성 변동 시나리오를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물류 대란으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시멘트 가격 인상 위협이 커지는 중**
-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프로젝트 발주가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이후 서서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를 대대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추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원유 선물 등의 투기 억제에 나설 시 유가의 하락 가능성과 미국의 원유재고 및 OPEC+ 회의에서의 증산량 결정에 따라 유가에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미 당국의 정책 방향과 원유 공급량 예의주시 필요**

1. 아프가니스탄

- (인프라 재건 사업 수행 위한 국제원조 절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국가 자산이 동결되었고 대부분의 국제 원조가 중단됨. 도로 등의 인프라 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²⁾
 - (배경)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95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동결시켰고 EU는 12억 달러의 개발원조 계획을 보류했으며 IMF·세계은행도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로,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선의 제한된 원조만 발표되고 있음
 - (내용) 탈레반은 여러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낙후된 도로의 보수 작업을 시작으로 국가 재건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나, 독일 국제방송 DW의 취재에 의하면 **해외 원조 자금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시사점) 탈레반 정부가 도로 재건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고 인도적 지원이긴 하나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차후 개발 목적의 국제 원조가 재개될 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 이란

- (이란과 '4+1 그룹' 간 핵합의 11월 29일 재개 예정)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11월 29일 핵 합의(공동행동계획, JCPOA) 복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협상은 미국을 제외한 UN 안전

2) DW (Deutsche Welle). 2021.10.18. Afghanistan: Taliban road construction projects stall without foreign funding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및 독일과
진행되던 중 지난 6월 중단됨³⁾

- (미국 입장) 미국은 이란의 거부로 간접 참여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 제한에 다시 응할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합의에 복귀할 의사를 밝힌 상태**
- (배경) 2015년에 체결된 핵 합의는 서방 국가의 지원과 이란의 핵 활동 유예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탈퇴하며 파기를 선언한 이후 이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 상태임. 특히 **정부 재정이 오일 판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해외 원유 판매가 금지되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
- (시사점) Fitch Solutions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시 이란은 활발해진 오일 수출을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정부의 투자가 살아나고, 이란에서 철수했던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동안 연기됐었던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다시 이행되면서 이란 정부는 특히 에너지·교통 부문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3. 이라크

- (연 30억 달러 투자 통해 천연가스 발전으로 교체 예정) 이라크는 2025년까지 가스소각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매년 30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⁴⁾
- (기타 친환경 정책) 2025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는 방안 강구 중
- (시사점) 이라크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기조로 가는 중으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3) Reuters. 2021.11.4. Talks on reviving 2015 Iran nuclear deal to resume Nov. 29

4) The National News. 2021.10.26. Iraq to invest \$3bn a year to switch from liquids to gas-powered generation

- (중동 최대 규모의 이라크 알 포 신항만 프로젝트 순항 중) 이라크는 국토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짧기 때문에 알 포(AI Faw)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해상 무역로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임. 대우건설이 1월에 수주한 27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 내용 중 5개 교각의 건설을 완료하면서 1단계가 거의 마무리됨⁵⁾
 - (향후 계획) 이후 단계들은 총 4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장차 100개의 선석을 건설함으로써 중동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을 구축할 예정
 - (시사점) 이라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후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철로, 터미널 등의 후속 공사도 대우건설이 수주할 시 우리 건설사들이 이라크에서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Dana Gas 컨소시엄에 미국 국제 개발금융공사 2억5천만 달러 자금 지원 합의) Crescent Petroleum과 Dana Gas의 컨소시엄인 Pearl Petroleum은 미국 국제 개발금융공사(DFC·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로부터 7년간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달받기로 했으며, 이는 DFC가 이라크에서 한 가장 큰 금액의 자금 지원으로 기록⁶⁾
 - (사업 내용) 자금이 사용될 사업은 이라크에 소재한 Khor Mor 플랜트의 가스 생산량 Capa를 50% 증가시키는 작업으로, 총 비용은 6억3천만 달러이며 2023년 4월 완공 예정. Pearl Petroleum은 여러 지역 발전소에 천연가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가스전 개발을 통해 이라크 정부는 해당 지역 연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함
 - (시사점) DFC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향후에도 중동국가들의 낙후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

5) Global Construction Review. 2021.09.21. Iraq's AI Faw port to become largest in Middle East

6) PFI. 2021.9.8. Dana Gas gets US DFC funding

4. 사우디아라비아

- **(외국인직접투자 연 1,000억 달성 위한 전략 발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원유 수출에 의존적인 재정 수익을 다변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투자 전략(NIS· National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⁷⁾
 - (세부 목표) NIS는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 규모를 3,880억 리얄(1,030억 달러)로, 연 국내 투자 규모를 1.7조 리얄(4,53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 계획) 사우디 정부는 제조, 신재생 에너지, 교통·물류, 관광, 디지털 인프라, 보건 등의 부문을 위한 투자 계획을 설계할 예정. 또한 특별 경제 구역을 설립함으로써 주요 공급망을 사우디로 유치하고, 민간 부문에 새로운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 (시사점)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과 완화된 규제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마련될 것으로 전망
- **(2025년까지 예정된 PPP 프로젝트 공개)** PPP와 자산 매각을 통해 사우디 정부 사업의 민영화 작업을 담당하는 민영화 국립센터(NCP· National Centre for Privatisation)는 8월초 Privatisation Program Manual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입찰 예정인 PPP 프로젝트들을 공개함⁸⁾
 - (세부 내용) 환경·물·농업 부문에는 다수의 담수처리공장, 하수처리공장, 물저장 사업 등을 포함한 31개의 프로젝트가 기재되었으며, 교통(도로, 항만, 공항)은 6개, 대중교통(가교, 버스노선)은 3개, 보건 부문은 17개, 교육은 1개의 프로젝트가 목록에 들었음
 - (시사점) 사우디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향후 PPP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건설사들에게 더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

7) NDTV. 2021.10.12. Saudi Arabia Targets \$100 Billion Yearly In Foreign Investment

8) PFI. 2021.09.09. Saudi Arabia - New projects list

5. UAE

- (경기 부양 위한 자금 투입 예고) UAE 정부는 개방적인 금융·무역 허브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가 경제에 2022년 136억 달러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총 1,500억 달러 사용 계획 발표⁹⁾
 - (세부 계획) 에미레이트 개발 은행의 산업 기술·기술 집약 부문 지원을 위해 배정된 13.6억 달러를 제외한 자금은 세부 사용처가 추후 발표될 예정
 - (시사점) 해외 기업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향후 IT기술·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가 추후 추가로 발표할 세부 사용 계획에 따라 대응 필요
- (두바이 정부 67.5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 계획 발표) 10월 두바이에서 시행된 PPP 회의에서 두바이 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29개 사업으로 구성된 총 규모 250억 디르함(약 67.5억 달러)의 PPP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음¹⁰⁾
 - (부문별 사업 계획) 해당 계획은 △도로 관련 프로젝트 10건 △보건 사업 7건 △대중교통 사업 4건 △폐기물 관리 사업 4건 △상하수도 사업 3건 △산업설비 사업 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계별 현황) 단계별 진행 상황으로는 △전략/컨셉 계획 단계 2건 △타당성조사 단계 7건 △구매조달 준비 단계 9건 △계약 협상 단계 7건 △착공 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가 4건임
 - (주요 프로젝트) 규모가 큰 단일 프로젝트로는 160억 디르함(약 43억 달러)에 이르는 Dubai Strategic Sewerage Tunnels*, 40억 디르함(약 11억 달러) 규모의 Dubai Waste Management Center** 등이 있음
 -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펌프를 대체하기 위해 100% 중력 하수도 시스템 구축
 - ** 일일 최소 5,666t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플랜트

9) AP News. 2021.9.6. UAE announces plan to invest in economy, liberalize laws

10) PFI. 2021.10.12. UAE - Dubai launches mega tunnel

- (시사점) 두바이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앞으로 두바이에서 여러 PP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므로, 해외 투자자들의 협력 기회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

6. 이스라엘

- (34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리버만(Liberman) 재무부 장관은 11월 중순 국가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1,100억 셰켈(약 340억 달러) 규모의 26개 인프라 프로젝트(교통, 에너지, 수도 등)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프로젝트들이나, 정부가 어떤 사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¹¹⁾
- (세부 내용)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90억 셰켈(약 280억 달러)은 여러 개의 경전철 노선과 새 공항을 포함한 교통 프로젝트에, 150억 셰켈(약 45억 달러)은 대형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110억(약 35억 달러)은 관청 건물 건축에 투입되며, 총 예산의 약 절반은 이스라엘 기업들과의 PPP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시사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스라엘 현지 기업들과의 적극적 협력 구도 및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7. 카타르

- (환경과 기후변화 부처 신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내각 개편을 진행하면서 환경과 기후변화 부처(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를 새로 설립했음을 밝힘. 이는 중동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10월말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진

11) The Jerusalem Post. 2021.10.24. Finance Ministry: NIS 110b. of infrastructure projects planned

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6)에 대응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임¹²⁾

- (카타르 프로젝트 현황) **2030년까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카타르는 Qatargas가 LNG 생산용량을 연 7700만t에서 1억1천만t으로 늘리기 위해 4개의 LNG mega-trains(액화·정제 시설)를 새로 건설하기 시작¹³⁾하는 등 가스 관련 프로젝트가 건설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사점) 신설된 부처의 지휘 아래 LNG 생산 시설에는 **탄소포집 기술,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 또한 유엔 기후변화회의 이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따라 그린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정책의 흐름 예의주시 필요**

◦ (**Barwa Group 카타르 최초 학교 건설 PPP 사업 재원 조달**) Barwa Group의 자회사 Dar al Eloum for Real Estate Development는 카타르 내에 **첫 학교 건설 PPP 사업을 위해 지역 은행과 1.73억 달러 규모의 22년짜리 PF계약을 체결¹⁴⁾**

- (세부 내용) Barwa Group은 25년 동안 8개의 학교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부와 계약되어 있으며, 건설은 2002년 9월 시작하여 2022년 6월 완료될 예정. 건설 완료 후 PPP 계약에 따라 학교들은 정부에 임대해주는 사업 구조로 진행
- (시사점) 학교 건물이 모두 완공된 뒤 운영이 시작되면 주변 상권의 추가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8. 쿠웨이트

◦ (**대규모 정부부처 조직개편 예정**) 쿠웨이트 정부는 향후 4년 간 대대적인 부처 통합, 폐지, 신설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 2022년에는

12) Reuters. 2021.10.19. Qatar forms climate change ministry, appoints finance minister

13) Doha News. 2021.10.18. Qatargas begins construction of four new LNG mega-trains

14) PFI. 2021.10.27. Qatar - PF for first schools

전력부, 수력부, 석유부가 에너지부라는 명칭 아래 한 부처로 통합되고 경제통상부가 새로 설립될 것이며, 서비스부의 폐지와 함께 IT통신부가 신설될 예정¹⁵⁾

- (경제통상부) 경제 발전 관련 정책, 민영화 전략, 쿠웨이트 민자사업청 (KAPP·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관리를 책임지고, 2023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진흥청(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수출 장려를 위한 전략 개발 업무를 수행할 것
- (IT통신부) 스마트 쿠웨이트 구축을 위한 ICT전략을 추진할 예정
- (참고사항) 이러한 조직개편 로드맵에는 투자법, 외국인 투자자 지분, PPP 등을 리뷰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음
- (시사점) 조직개편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부처별 지도부의 변동과 함께 정책·규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함

9. 바레인

- (부가가치세 2배 인상 예정) 바레인 정부와 의회는 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5%에서 10%로 2배 인상 예정¹⁶⁾
- (배경) 2014~15년 오일 쇼크 이후 바레인은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였고, 2018년에 주변국들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신용 경색을 피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에너지와 관광 부문이 작년에 타격을 입으면서 재정 적자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¹⁷⁾
- (시사점)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서 해외 현장에서 구매하는 자재와

15) Arab News. 2021.09.20. Kuwait to implement largest government restructuring in its history as of 2022

16) Saudi Gazette. 2021.10.31. Bahrain raises VAT to 10% by 2022

17) Reuters. 2021.09.26. Bahrain could double value added tax - sources

대여하는 장비 등에 관한 예산이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검토 필요

- (경전철 PPP 사업 착수 승인) 바레인 정부가 1단계 진행 승인을 한 경전철 PPP 프로젝트가 곧 입찰을 시작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는 35년 동안 DBFOMT(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Transfer) 방식으로 사업 진행 예정¹⁸⁾
 - (상세 내용) 1단계 프로젝트는 총 109km 중 28.6km의 노선을 구축. 사용료 지급은 성과에 따른 공제와 보상이 포함된 **AP(Availability payment)***로 이루어지며, **자본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전체 109km 노선의 총 자본비용은 10~20억 달러로 추산
 - * AP: 시설물의 상태나 질적 수준에 따라 정부가 프로젝트 회사에게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시사점) 당국은 대대적인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10. 오만

- (디지털 경제 구축 위한 프로그램 발족) 오만 내각은 오만 비전 2040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NPDE·National Programme for Digital Economy)을 시행하기로 함¹⁹⁾
 - (세부 내용) NPDE는 행정의 디지털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경제와 전략 부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주요 세 축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목표) 우선순위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기술 인프라의 개발, 디지털 산업, 사이버보안에** 둘 예정. 이를 통해 주요 경제전략 부문에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디지털 콘텐츠

18) PFI. 2021.09.26. Bahrain - Metro PPP first phase approved

19) Times of Oman. 2021.10.21. Oman launches National Digital Economy programme

개발, 해외 기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오만 정부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의 기반 시설 건립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